

저는 담배를 피지않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등 건물의 안에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규칙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담배를 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요즈음 흡연의 심각성에 관해서 많은 논문이 나와 있다. 그것에 의하면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 만큼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옆에서 연기를 마시는 것 만으로 나는 흡연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레스토랑, 버스나 전철 등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V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방영하지 못하게 할 정도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금지할 권리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